

— EIAK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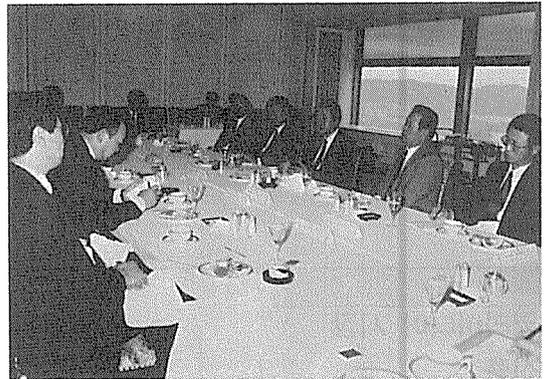
제82차 이사회 개최



본회 제82차 이사회가 지난 5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구자학 회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분야의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중소기업지원 및 임금안정화 시책 등 경제활성화 조치들로 우리 업계 경영환경이 호전되고 있으며 최근의 전자제품 수출동향은 모니터와 무선전화기가 주도하는 산업용기기가 전년대비 35.5% 증가에 힘입어 금년 1/4분기에는 5,089백만불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일본의 엔화절상, 동구권의 유통제고 소진, 미국 및 EC 등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분발하여 노력하고 정부의 신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게 우리 전자업계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지는 이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회인사와 최근의 전자제품 수출 동향, 폐기

물 예치금 제도개선 건의 등 17건, 한·EC 가전산업협의회 개최, '93년도 한국전자전 추진현황 등 '93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한덕수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신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었다.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전자업계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9일 무역클럽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 등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전자업계의 의견을 듣는 정부의 대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주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규제완화와 임금의 적정수준으로의 안정을 위해 임금의 조기 타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동화·정보화 사업,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등 중소

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건의사항으로는 국내의 기술개발을 위해 첨단분야의 국내 산업보호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산업안전교육 등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대학원 일행 본회 방문

미국 국방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지난 5월 4일 본회를 방문하였다.

동대학원 Grossman 교수 등 11명이 내한한 일행은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본회는 국내 전자산업에 대한 수출동향과 투자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방문단은 또한 ISO 9000시리즈 등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93년도 전자·전기공업통계 담당자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3일~4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구미, 대구, 마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93년도 전자·전기공업통계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본회는 정부 지정 통계 기관으로서 매월 전자·전기공업통계를 조사하여 정부 및 업체의 경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이우중 이사의 통계자료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계자료 제출 우수업체 담당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제15회 통계간담회 표창자 명단

업 체 명	성 명
금 성 통 신 (주)	변 영 남
나 우 정 밀 (주)	정 순 복
삼 원 전 자 공 업 (주)	홍 종 화
한 국 전 자 (주)	정 길 환
한 국 에 르 나 (주)	이 광 태
한 국 압 착 단 자 (주)	이 금 옥
(주)한독전자신일가스켓	김 동 권
대 우 전 자 (주)	고 정 희
삼 성 전 자 (주) (반도체)	황 미 정
삼 신 전 자 (주)	성 은 순
(주)상아프론테크	이 정 희
(주)시대전기	유 경 근
아 남 전 자 (주)	김 혁 원
오 리 온 전 기 (주)	양 현 자
(주)코리아데이터시스템	김 현 영
한 국 동 경 전 파 (주)	이 완 수
한 국 동 경 시 리 콘 (주)	조 휴 진
신 영 전 기 공 업 사 (주)	김 금 종
광 성 전 기 (주)	권 선 주
(주)한미	권 오 섭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건의

본회는 지난 4월 27일 상공자원부, 재무부에 외국환 관리규정 일부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7-24조)에 표준항해 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으로부터의 연지급 수입이 전자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아 최근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엔화의 영향으로 우리전자업계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수입가격 상승, 수입선 다변화의 곤란 등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9 page 참조>

전자산업 지원세제 개선 건의

본회는 지난 4월 27일 상공부자원부에 전자산업 지원세제의 개선을 건의 했다.

동 건의는 최근의 경기부진을 타개하고 신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광공업 및 관련서비스업의 기술, 인력개발 강화, 설비투자의 활성화, 내수기반의 확충, 중소기업의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자업계의 경기를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세제 건의를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4 page 참조>

전자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 등의 조정 건의

본회는 지는 4월 27일 상공자원부, 내무부, 산업연구원 등에 전자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 등의 조정을 건의 했다.

동 건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4조의 11)에 규정된 현행 전자산업의 기준공장면적

율이 타산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기술혁신이 빠른 전자산업의 경우 시설확충 등 증설이 곤란하고 신규로 공장설립이 불가피한 바 그럴 경우 적정 입지 확보의 곤란, 부지확보의 막대한 자금수요, 설립절차의 복잡 등의 애로가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7 page 참조>

PC 중간재 생산자 단체 규격 표준화

본회의 컴퓨터산업협의회는 PC 중간재 생산자 단체 규격 표준화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5월 4일 개최했다.

산업화 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면서 컴퓨터, 반도체, 통신 등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산업도 1983년 공업생산을 시작한 이래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2배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임금 및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악화 되었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이 격감하게 되어 수출위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회는 그 동안 정보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컴퓨터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 및 기술적인 문제, 첨예하게 부각되어 있는 특허문제 등 컴퓨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회에서 정부의 표준화 추진계획에 맞서 "전자 부품 등의 생산자 단체준화 추진요령"을 제정하고 전자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

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품목별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컴퓨터산업협의회에서는 PC 중간재를 표준화하기로 하고 최근 1년여에 걸쳐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등 주요 PC Set 업체 및 중간재 생산업체의 참여속에 Mother Board, Case, SMPS, Add-On-Card, 키보드, CRT 모니터, FDD, CD-ROM Drive, MODD 등 Desk-Top PC 중간재 10개 부문에 대한 규격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1993년 5월 1일 동 생산자 단체 표준 규격을 고시하였다.

또한 "PC 중간재 생산자 단체 규격 표준화" 규격집이 발간되었다.

공장자동화 추진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삼성항공(주) 이대원 사장)는 지난해 11월 발족된 공장자동화 자문단(단장: 서호전기(주) 이상호 사장)의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문위원회를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4월 21일에는 금성계전 정준식 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드전자의 Cpot 용접자동화 등 7개업체에 대한 자문결과를 점검 분석했다.

'93년 제2차 자문을 위한 현장방문은 4월 27일부터 개시되었으며 5월말까지 자문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통신산업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대우통신(주) 박성규 사장)는 지난 4월 2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휴대폰 원산지 증명 관련회의를 개최하고 휴

대폰 원산지 증명제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CATV기기 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삼창전자(주) 김인수 사장 등 10명이 참석 연장증폭기 공동개발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 송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고려전자 ENG(주) 남명희 사장 등 8명이 참석. 방송국 표준 모델링 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지 난 4월 28일 동협의회는 삼우전자정밀(주) 이필수 이사 등 3명이 참석. CATV용 코넥터 표준화 공통규칙 작성을 협의했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

지난 4월 29일 동협의회는 본회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료기기 수급위원회를 개최했다.

동아X-선 기계(주) 등 4개사, 강남병원 등 7개병원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수급위원회는 위원장에 한국보훈병원 강해진 계장, 부위원장에 동아X-선 기계 이중완 이사를 선임했다.

동 수급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기관 및 산업계간 건전한 교류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자의료기기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HA 산업협의회

지 난 4월 15일, 29일 동협의회는 본회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주) 이창우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 HA 표준화 규격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가정 정보버스시스템의 표준규격 초안을 검토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디 스플레이분과위원회(위원장 : 삼성전관(주) 박경팔 사장)는 지난 4월 2일, 21일 금성사 등 5개사가 참석 28", 16:9브라운관 유리의 표준화 규격을 협의 하였다.

변 성기 분과위원회(위원장 : 보성전자산업(주) 유병화 사장)는 지난 3월 30일 삼성전기 등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Film Capacitor의 표준화 규격을 협의 하였다.

동 협의회는 '92년도에 EIAK 규격으로 제정하였던 15" 브라운관 유리 등 30개 규격에 대한 공진청 단체 표준화 규격 승인을 위한 심의회를 지난 4월 2일 국민대 전자공학과에서 개최하였다.

지 난 4월 8일~14일. 전자부품 표준화를 위한 수급업체간 회의를 개최하고 모니터에 소요되는 부품 등 총 5개분야 37개 표준화 과제를 도출, 기존 30개 과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 하였다.

센 서분과위원회(위원장 : 게코전자(주) 홍기룡 사장)에는 지난 4월 15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태평양 시스템 등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NTC 써머스터 시험방법, 표준화 등에 대해서 잠정 규격을 제정하였다.

EIAK 신간안내



본회에서는 지난 4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92년 수급실적과 함께 수출입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통계가 수록된 「'92 電子·電氣工業統計」를 발행하였다. 특히 전자산업의 동향과 HS분류에 의한 세부 수출입 실적이 상세히 실려있어 산업조사 및 기획업무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 판형 : 5×7배판/면수 : 566면

• 문의처

내용 : 본회 조사부 조사통계과
554-4286(直)

배포 : 본회 자료실 553-0941(交) 43,
562-5054(直)

한 국 전 자 공 업 진 흥 회